





2008 DPG쇼

디지털 그래픽의 무한한 가능성 제시

제5회 국제디지털프린팅 및 그래픽디자인전 (DPG show2008)이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약 80개의 참가업체, 400개 부스 규모로 개최되었다. 전시회 기간에는 2만여 관람객이 입장한 가운데 디지털인쇄, 실사연출, 디지털날염을 비롯, 특수인쇄, 이미지 연출 및 그래픽디자인 등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대형프린터, 디지털인쇄시스템(POD), CTP시스템, 제본기, 인쇄잉크, 종이, 잉크젯 프린터, 인화지, 필름, 디지털날염기, 열전사기, 발색기와 스크린인쇄기, 평판프린터, 라벨인쇄기, 스티커인쇄기, 후가공 및 응용, 이미지 연출 및 그래픽디자인 관련업체들이 신제품 및 최신 버전의 장비와 제품을 선보였다.

한편 디지털아트 작품전은 한국디지털아트협회에서 주관, 컴퓨터 그래픽디자인 작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DTP특별관의 경우 텍스타일 프린팅 아티스트들과 관련학과 학생들의 작품 및 공모전 수상작 등이 전시되어 디지털프린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장이 되었다는 평을 들었다.

프린팅 존은 출력물을 실제 적용해 시각적으로 표현되는지 시연하는 행사로 관련사업의 이해를 높여주었으며, 메이크업 쇼는 포토쇼(Photo & Imaging Show)와 연계, 진행되어 관람객의 참여도를 높이고 이벤트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을 받았다.

솔벤트장비와 Z6100선보인 한국HP

한국HP(대표이사 최준근)는 8000s, 9000s, 10000s 등의 솔벤트 장비와 Z6100 등을 선보였다. 또한 기존에 있던 54인치 6색 컬러스관 5465uv를 디자인젯 h45500



으로 명칭을 변경, 전시했다. 이는 한국HP가 컬러스관을 인수한 후 처음 선보인 UV장비다.

HP의 디자인젯 9000시리즈는 응답 시간을 크게 줄이며 인쇄 용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최고의 생산성을 위한 대량 인쇄에 적합성을 가지며 세부적으로 출력물 되감기 기능을 통해 장시간 무인 인쇄의 실행이 가능하다. 빠른 인쇄 속도와 낮은 비용으로 스크린 프린터와 비교할 때 손익분기점을 높여준다. 비용의 최소화를 지원할 뿐 아니라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다.

한편 가우넷(www.gaunet.co.kr)은 최근 HP의 총판으로 선정된 것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RJ-1300 선보인 코스테크

코스테크(대표 민경원)는 이번 DPG쇼에 차기주력 제품인 RJ-1300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물결무늬로 프린팅을 하는 RJ-1300은 가로밴딩과 이색현상을 최소화한 뉴엡손헤드의 밸류젯·웨이브젯에 이은 후속모델이다. '밸류젯 프로' (솔벤트), '웨이브젯 프로' (수성) 등 이른바 '프로 시리즈'와 함께 히트 제품의 전통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RJ-1300은 뉴 엡손헤드를 더블로 장착해 빨라진 속도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코스테크는 또 현수막 세컨드 머신으로 각광받고 있는 90폭의 소형출력장비 'RJ-900'와 광폭인 130폭의 'RJ-1300'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면서 라인업

을 구축해 시장장악에 박차를 가했다고 자평했다. 이밖에 친환경의 다이렉트 출력 잉크 '뮤바이오'를 탑재했으며 다양한 평판출력이 가능한 '밸류젯 하이브리드'와 전사기 '오펠리스'도 출품해 눈길을 끌었다.



네오젯 시리즈 선보인 일리정공

일리정공(주)(대표이사 최근수)는 네오 비너스 UVV-2506(GW)와 네오 타이탄 UVT-2506S를 선보였다. 네오



비너스 UVV-2506(GW)는 평판, 롤 소재에 적용 가능한 콤보 타입 제품이면서도 고해상도 출력이 가능한 제품으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화이트잉크 시스템 탑재로 어떤 상태의 소재에도 뛰어난 색상구현이 가능하다.

한편, 네오 타이탄 UVT-2506S는 롤 및 평판형 소재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UV잉크젯 프린터이다. '자동 헤드 높이 조절시스템', '램프 셔터링 시스템', '미디어 세팅 시스템' 등을 장착했으며 고해상도 코니카 헤드로 고화질 및 고품질 제품을 출력할 수 있으며 어떤 상태의 소재에서도 뛰어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다.

후지필름의 UV잉크젯프린터 선보인 솔루션

성도GL/솔루윈(대표이사 김상래)은 후지필름 Sericol의 Acuity HD 2504 UV 잉크젯 프린터를 선보였다.

Acuity HD 2504 프린터는 광폭 UV 디지털 이미징 기



술의 최신 결정판으로 후지필름의 Sericol UV잉크 와 6에서 42 picoliter 의 가변 잉크량을 지원하는 Piezoelectric UV 잉크젯 헤드를 사용해 1440dpi 이상의 고해상도를 구현함으로써 섬세한 디테일 과 고품질을 요구하는 프린팅 응용분야에 적합하다.

또한 48mm 이하 두께의 목재, 타일, 필름, 금속, 유리, PVC 등 경·연질의 광범위한 소재를 수용하며, 2.5m×1.5m 프린트 영역과 시간당 16m²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UV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물의 내구성과 작업 환경과 제품의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주요 응용산업분야는 라벨, 패키지, POP 디스플레이 및 사인 등이다.

랩터 등 앞선 기술력 선보인 디젠

디젠(대표이사 이길헌)은 이번 전시회에 2008년 잉크젯 프린터 랩터를 출품해 디지털인쇄분야의 최강자인 자사의 기술력을 과시했다. 디젠은 이 분야 핵심 기술인 컬러매니지먼트시스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랩터에 열전사기 내장형 디지털 프린터 특허, '잉크자동공급장치' 등을 적용했다. 회사 관계자는 랩터는 수성안료를 사용해 솔벤트와 달리 환경친화적이며 8색까지 인쇄가 가능해 자연스러우면서 뛰어난 컬러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를 뛰어넘는 품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종이에 인쇄하듯 폴리에스텔 원단에 직접

인쇄할 수 있는 폴라리스, 디지털 날염기 Arachne 748TX/C, 품질과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된 솔벤트 출력기 솔벤트Z TJ·1880/V8 등도 함께 선보였다.



컬러매니지먼트 솔루션 선보인 마이크로닉스

디지털 이미지 솔루션 통합 시스템 공급업체인 마이크로닉스(대표이사 이병열)는 'X-Rite'의 컬러매니지먼트



트 솔루션(CMS)을 출품했다. 출품품목으로는 X-Rite 컬러매니지먼트 솔루션, Eye-One Series, Eye-One LT, Display 2, iO 등이다. 농도계 시리즈로는 필름투사 농도계 341, 인쇄판농도계 iCPlate II, 반사원고전용농도계 DersiEye 700농도계 겸 분광광도계 530 등을 선보였다.

마이크로닉스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CMS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농도계 등 'X-Rite 컬러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출력업체들에게 가격 대비 최고의 만족을 주는 제품이라는 확신을 주었다고 밝혔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